

신규설비 가동·中 증설부담 커져 석화업계, 공급 과잉에 ‘실적 악화’

LG화학·롯데케미칼, 수요회복 지연
글로벌 시장 변화, 회복 어려운 구조
에틸렌 스프레드, 수익성 회복 한계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 해결책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지속되고 있는 공급 과잉 구조 속에서 올해도 하반기 대형 신규 설비 가동과 중국의 추가 증설 부담으로 침체국면 탈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해 4분기 매출 11조1854억원, 영업손실 1624억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12% 감소한 수준으로, 석유화학 부문의 수익성 악화가실적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케미칼 역시 지난해 4분기 매출 5조90억원, 영업손실 2350억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줄었으며 영업손실은 직전 분기(1326억원) 대비 77% 확대된 규모다. 수요회복 지연 속에서 고정비 부담이 이어지며 적자 폭이 커졌다는 평가다.

올해 1분기에도 실적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 업계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는 손익분기점으로 쥘리는 톤(t)당 250달러를 크게 밑돌고 있다.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서 수익성 회복이 쉽지 않은 구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전경.

조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에서는 중국 내 신규 설비 증설이 지속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에쓰오일(S-OIL)의 대형 석유화학 설비인 샤한 프로젝트 가동도 예정돼 있다. 기존 공급 과잉 구조에 신규 물량이 더해질 경우 수급 불균형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LG화학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1조6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익은 1304억원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되지만, 당기순이익은 378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케미칼도 올해 1분기 영업손실 1753억원이 예상돼 적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 석유화학사들은 지난해 말까지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며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다만 현재 제출된 안은 큰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정부와 업계는 늦어도 상반기 내 최종안을 확정하고 단계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범용 제품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 전략도 병행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 간 구조조정이나 통합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고부가제품 중심의 사업 전환이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며 “다만 시장 구조상 1~2년 안에 빠르게 전환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5G기반 차량용 텔레매틱스 기술개발 착수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전환 대응
고정밀 지도서비스,원격제어 등 가능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차량과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5G 무선통신 기반 차량용 텔레매틱스 기술 개발에 나선다. 자동차와 무선통신망을 결합해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현대모비스는 모빌리티 분야 전장사업 강화를 위해 5G 무선통신 기반 안테나 일체형 텔레매틱스 솔루션(MTCU)을 개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이동통신 세대가 4G에서 5G로 넘어가면서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고사양, 다기능 텔레매틱스 제품을 중심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차량용 텔레매틱스 기능은 4G 이동 통신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도 현재 4G 기반의 텔레매틱스 제품을 양산 공급 중이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하는 5G 기반 차세대 텔레매틱스 기술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커넥티드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양산 적용을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기술이다. 5G 기반 텔레매틱스 기술은 고정밀지도 서비스, 자율주행 원격제어, 초고화질 스트리밍 등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다. 현재 4G 통신 기반에서는 차량 내 무선 업데이트(OTA), 카투홀 서비스(차량과 스마트폰 연결), 인포테인먼트 콘텐츠 스트리밍 등의 서비스만 가능하다.

현대모비스 정수경 전장BU장(부사장)은 “차세대 커넥티드카 서비스 분야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자동차를 스마트폰처럼 다루고 싶어 하거나 차별화된 이동 경험을 원하는 사용자가 늘면서 텔레매틱스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텔레매틱스 제어기 시장은 올해 6400만대 규모에서 오는 2030년 7700만대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성운 기자 ysw@

코웨이, 유사 디자인 감시체계 강화

‘디자인 모니터링 TF’ 신설

코웨이가 기업 핵심 자산인 디자인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업계 최초로 ‘디자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유사 디자인 상시 감시체계 구축에 나선다.

21일 코웨이에 따르면 시장 내 유사 디자인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조직 차원의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TF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TF는 올해 1분기 내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코웨이는 TF신설을 통해 시장 내 유사·모방 디자인 의심 사례를 조기에 포착하고, 권리 검토 결과에 따라 공식 경고부터 필요시 법적 조치까지 전사 차원의 선제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코웨이가 추진 중인 ‘디자인 모니

터링 TF’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지식재산(IP), 법무, 상품기획, 디자인, R&D, 홍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사 협업 조직으로 운영한다. TF는 ▲국내외 경쟁사 제품 및 시장 동향 상시 모니터링 ▲유사 디자인 의심 사례 신속 분석 ▲지식재산권 침해 판단 기준 정교화 ▲침해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 등 단계별 대응을 추진한다.

특히, 코웨이는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나아가, 상시 모니터링-지식재산권 검토-공식 경고-법적 조치로 이어지는 디자인 IP 보호 원스톱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유사 디자인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엑시트한 선배들, 후배위한 펀드 결성해야”

한성숙 장관, ‘기업가정신포럼’서 밝혀
“선배 펀드, 업계에 긍정 신호도”
지역경제 활성화·로컬창업 지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업이나 투자 등을 통해)엑시트(Exit)한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벤처펀드를 많이 결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성숙 장관은 21일 오전 (사)도전과 나눔이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개최한 기업가정신포럼에 참여해 참석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벤처펀드 등에)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벌어)행복해야 신

규 투자자가 또 생기는 등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로 84회를 맞이한 도전과 나눔 기업가정신포럼에는 선배 기업인들과 스타트업을 창업한 후배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 장관은 “개인 등 투자자들은 빨리 회수하고 싶어하고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장기투자를 원하는데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장기투자하는) ‘인내자본’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선배들이 펀드를 결성하면 업

계에 주는 긍정적 신호도 있고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의 경우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자 추진하는 ‘2025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성공한 재일 교포를 중심으로 지역에 투자하는 1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한바 있다. 미국에 진출해 사업을 하고 있는 선배들이 결성한 UKF(United Korean Founders)에서도 후배 스타트업들을 위한 펀드 결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호 기자 bada@

제주항공, 보조배터리 기내사용 전면 금지

화재예방 위한 사전 안전관리
전자담배·무선고데기 반입 금지

국내 항공업계가 보조배터리로 인한 기내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항공기 내 연기·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발화 가능성이 지목되면서 항공사들이 사후 대응 중심 관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오는

22일부터 국내선과 국제선 전 노선에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기존 국토교통부 지침상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충전이 제한돼 있었지만, 제주항공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조배터리 자체의 기내 사용을 막아 화재 위험 요인을 원천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은 지난해부터 리튬배터리 관련 안전조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지난해 2월부터 기내에 화재 진압용 파우치를 탑재해 운영 중이며, 국토부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 시행에 따라 3월부터는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 후 보조배터리를 몸에 지니거나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8월에는 항공기 내부 선반에 온도 감응 스티커를 부착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등 리튬배터리 관련 습득 유실물은 즉시 폐기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고열 발생 위험이 있는 무선고데기의 기내 반입도 금지하고 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기내 반입이 가능한 리튬배터리 충전 용량(Wh)을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정수기 교체 시 10만 포인트 증정

LG전자가 LG 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얼음정수기 신모델 출시를 기념해 정수기 교체 수요를 겨냥한 프로모션에 나섰다.

21일 LG전자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공식 온라인 브랜드숍에서 ‘LG 정수기 체인지업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LG 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얼음정수기는 2026년 1월 기준 국내 유일의 냉동 보관 얼음정수기다.

이번 2026년형 신모델은 하루 제빙량을 3.8kg까지 늘려 기존 모델 대비 두 배의 성능을 구현했다. 얼음 저장 용량 역시 1kg으로 확대돼 이전보다 1.8배 증가했다. 이에 더해 맞춤형수·맞춤온도·미세출수 기능과 증금속 9종을 걸러



‘LG 정수기 체인지업 페스티벌’ 프로모션 이미지.

/LG전자

내고로노바이러스를 99.99% 제거하는 ‘올 퓨리 필터 시스템’ 등을 적용했다..

LG전자 공식 온라인 브랜드숍에서 얼음정수기 신모델을 비롯해 이벤트 대상 정수기를 구매 또는 구독 후, 정수기 교체 인증 정보를 입력한 고객에게 LG 전자 멤버십 포인트 10만P를 증정한다.

/김민술 인턴기자 mnskim@